

국내외 직업훈련방송 현황 및 요구분석을 통한 운영전략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수 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장 명 희
오클라호마대학교 대학원 한 정 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서 창 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전 중 호

목 차

I. 서론

II. 국내외 직업훈련방송 운영현황

1. 국내 직업훈련방송
2. 국외 직업훈련방송
3. 시사점

III. 재직자와 실업자의 인식 및 요구

1. 설문조사 분석 틀
2. 설문조사 대상
3. 설문조사 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직업훈련방송’은 다채널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뉴스, 다큐멘터리, 외국어,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취미, 음악 전문채널처럼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방송이다.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방송은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방송매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송이다.

직업훈련방송의 목표는 첫째, 학교 같은 제도적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교육훈련수요를 방송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균형 있게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 시청을 통해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능력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직무 능력의 함양과 직무 수행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며, 국가적으로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방송 매체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한다. 넷째, 훈련 프로그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훈련기회가 박탈되고 훈련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훈련 기회와 질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

직업훈련방송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으로는 첫째, 직업훈련방송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훈련방송을 통해 필요한 훈련과정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방송은 수용자가 자신에게 합당한 학습환경을 창출하여 독립적·자기 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끔 한다. 나아가 앞으로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맞춤형 훈련체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넷째, 방송의 기술적 속성인 시각과 청각의 기술적 소구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직업훈련방송이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새로운 매체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 각 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

로벌 경쟁 시대를 대비하여 2002년부터 EBS 위성TV 플러스2 전문채널을 통해 직업 훈련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직업훈련방송은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훈련방송이 훈련현장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직업훈련방송과 국외 직업훈련방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직업훈련방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직업훈련방송 주목표시청대상(target audience)인 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궁극적으로 직업훈련방송의 향후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직업훈련방송 운영 현황

1. 국내 직업훈련방송 : EBS 위성TV 플러스2를 중심으로

가. 개요

국내의 경우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있는 방송사는 뉴미디어 방송사 특히 경제, 디지털, 여성, 교육, 및 창업·취업 전문채널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례로 매일경제TV MBN에서는 금융자산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투자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중심으로 창업, 자금 운용 방법 등 다양한 재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JEI 스스로 방송은 어린이 교육전문 채널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정보·외국어·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채널 역시 웹콜마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정보검색사, EC기술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실무용 비즈니스 영어회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전문 채널인 SDN TV는 부동산, 금융, 증권, 창업 등 분야별로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BC 열린방송은 창업·취업 전문 채널로서 취업정보 인터넷 회사와 제휴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구인구직 정보와 함께 취업전략, 기업정보, 자격증 등의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유망업종에 대한 정보 및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팁(tip) 형식의 강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이 외에 디지털 전문 채널인 e-채널 및 국립방송 KTV에서도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아직 국내 방송사의 직업훈련관련 프로그램 제작 상황은 초기 단계로서 창업 및 자격증 관련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강좌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수단으로 방송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노동부는 직업훈련 전문채널 실시를 위해 2001년 말부터 준비작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12월 직업훈련방송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직업훈련방송 시행에 필요한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2002년 2월 '직업훈련방송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 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EBS간에 직업훈련방송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2002년 2월 25일 EBS 위성TV 플러스2를 통해 직업훈련방송이 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 직업훈련 전문방송인 EBS 위성TV 플러스2 2002년도 운영현황을 운영조직, 편성·제작, 홍보, TV 시청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운영조직

EBS 직업훈련방송은 국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처럼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직업훈련 수혜권 보장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 운영은 노동부로부터 수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EBS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심의위원회, 과정선정위원회를 두었다(<표 1> 참조).

<표 1> 직업훈련방송 운영 조직

	주 최	기 능	실시현황
운영 협의회	EBS	방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협의	· 원칙 : 매주 · 현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실시
심 의 위원회	EBS	전반적인 심의	· 원칙 : 분기별 · 현황 : 실시 안 했음.
과정선정 위원회	한국산업 인력공단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 선정	· 원칙 : 과정선정이 필요할 때 · 현황 :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 조직을 두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전반적인 심의를 맡았던 심의위원회는 아예 실시되지 않아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향후 계획 및 방향 수립을 위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과정선전위원회에서는 과정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과정선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반면 운영협의회는 적절하게 개최되고 운영되었으나, 모니터 요원의 운영 및 협의회 결과에 대한 반영 등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운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과정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협의회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협의회 안전과 모니터 요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 편성·제작

EBS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은 2002년도 8월을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1일 4시간씩(노동부 지원: 1일 30분), 5개의 과정이 프로그램당 1일 삼방을 실시하고, 주말에 종합 재방송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의 편성 기본 플랫폼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을 30분에서 1시간씩 확대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때부터 방영되어온 <직업탐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하루에 두 개씩 각각 3번 방영되었다. 2002년도 EBS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제작 현황은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 편성·제작 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비 고
상반기	자 격 증	금융자산 관리사 강좌	· 1일 4시간 (노동부 지원 : 1일 30분) · 프로그램 당 1일 삼방 · 주말 종합 재방송 실시
	직무연수	생산자동화 강좌	
	직업정보	직업탐구 강좌	
	직무연수	정보기기 운용강좌	
	직무연수	컴퓨터 그래픽스 강좌	
하반기	직무연수	고객관계관리(CRM) 강좌	· 노동부 지원 1일 1시간으로 확대 · 1일 두 개 프로그램 각각 삼방
	자 격 증	네트워크관리사 강좌	
	직무연수	생산현장의 디지털 신호제어	
	직무연수	생활노동법률	
	직무연수	전사적자원관리(ERP) 강좌	
	직무연수	디지털경제시대 e-biz	
	직무연수	고객만족서비스 성공기법	
	직무연수	6시그마 품질혁신	
	직무연수	알기 쉬운 세무회계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 분야는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자격증과정, 직무연수과정, 직업정보과정의 세 분야로 구성되었다. 자격증 과정은 첨단 자격증 및 교육수요가 많은 자격증 강좌 프로그램을,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직무환경 변화에 적응토록 하는 직무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직업정보 프로그램은 직업의 실제 근무환경 등을 밀착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였다.

직업훈련방송은 매월 2,500여분의 방송시간과 80회 이상의 방송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위하여 먼저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EBS 담당자들이 모여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 선정을 협의한 후, 내용과 관련한 자료화면 야외 촬영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녹화를 통해 강의식 또는 종합구성물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라. 홍보

직업훈련방송 홍보는 EBS 위성TV 플러스2 채널은 물론 EBS 지상파 TV에서 스팟 및 스크롤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상파TV 스팟 홍보의 경우, 2002년도 2월에서 9월까지의 많은 월 50회정도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아예 홍보가 실시되지 않은 달도 있었다. 10월 이후에는 월 30회 이상 꾸준히 스팟 홍보방송을 실시하였다.

방송 외에 각종 신문 및 우편을 통해 홍보되었는데, 기술·기능인신문, 세계일보, Metro, 월간노동지, 산업인력소식지, EBS FOCUS 등의 인쇄물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체 450여 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다.

또한 EBS 홈페이지의 직업훈련방송 전용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수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효과를 시도하였다. 현재 방영중인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시 시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위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목록과 각 목록별 VOD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모든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의 VOD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홍보 효과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TV 시청률

CATV 등 중계방송국의 자료를 통해 검출된 2002년 직업훈련방송의 시청률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기록이 나왔다. 물론

EBS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을 타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직업훈련방송과 같은 전문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직업훈련방송의 저조한 시청률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여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다.

2. 국외 직업훈련방송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는 이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PBS, 영국의 BBC, 프랑스의 France5와 Demain, 독일의 BR-alpha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가. 미국

미국 교육방송 PBS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1981년부터 성인학습서비스(ALS: Adult Learning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을 대학 및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원격교육과정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직 개발 이벤트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학습준비(Ready to Earn), 원격교육(Going the Distance), 비즈니스 채널(Business Channel)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1994년부터 제공된 학습준비(RTE: Ready to Earn) 서비스의 기본 목표는 미취업자 및 재직근로자가 현재 갖추고 있는 지식 및 기술과 지구촌 경쟁 시대에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줄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직업교육 연구센터(NCRVE :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등 몇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및 교육기관에게 교수 안내서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및 지역공동체 연구 기관과 함께 교통·통신·농업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시킨 일종의 멀티미디어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둘째, PBS는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방편

으로 GTD(Going the Dista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TD의 세 가지 목표는 (1) 원격교육 접근의 용이성 향상, (2) 학위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축소를 통해 학업 의욕 증진 및 (3) 전 세계의 학습자에게 품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다.

셋째, PBS는 각 대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훈련시켜 확장 마케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The Business Channe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학 전문가와 함께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완성된 시기 적절한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위성(satellite), 쌍방향 컴퓨터(interactive desktop), 쌍방향 웹(interactive web) 및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원격학습을 활성화시켜 대학 및 지역사회에 최신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대표적인 공영방송 BBC를 통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BBC2에서는 교육방송 시간을 별도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고, BBC Knowledge에서는 디지털 교육전문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BBC Online에서는 교육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하윤금, 조영직, 2000).

특히 BBC Learning Zone은 BBC2 채널에서 1995년부터 심야·새벽 시간대에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이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주제는 언어, 컴퓨터, 기술, 음악, 예술, 역사, 지리, 미디어, 건강, 사업 등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가 심야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녹화한 후, 자신이 편한 시간에 다시 재생하여 학습하게끔 도와주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이다.

또한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BBC는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모든 수용자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6년에 교육 전문 디지털 채널인 BBC Knowledge를 개시하였다. BBC Knowledge를 통해 디지털 TV채널의 쌍방향 서비스를 확충하며 TV 방송에서 채택 학습자를 위한 상호적인 주문형(on-demand) 시스템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한 BBC Education Online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관심 있는 테마를 발굴, 학습하도록 돕고 있다. Online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은 Computers & the Internet, Design & Technology, Gardening, Health, History,

Languages, Nature 등이 있으며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지상파 제5채널을 사용하는 La Cinquieme 즉 France5가 전문 교육채널이다. 구체적으로 미취업자, 실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에 관련된 최신 정보와 재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구체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전문 국가기관에 맡기고 TV를 통해서도 직업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다(EBS, 2002).

France5는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아침에 편성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TV를 통해서도 넓은 수의 시청자를 수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France5는 시청자에게 양질의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 활용 뿐만 아니라 음성 서버 및 미니텔(Minitel) 서비스를 제공하고 BPS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하운급 외, 2000). 이 밖에 CD-ROM 제작, 비디오 카세트 및 서적 출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BS, 2002).

프랑스에서는 지상파 교육방송 France5에서 뿐만 아니라 1997년에 출범한 유료 직업전문채널 Demain을 통해 취업, 창업, 직업 소개 등 직업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루 18시간(아침 07:00~새벽 01:00) 방송되고 있다.

Demain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형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실용적인 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구인·구직 프로그램, 직업 교육 소개 프로그램 및 소규모 상점 매대 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테마형 프로그램은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취지에 맞춘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 직업 정보를, 문화 프로그램에서는 문화계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는 등 테마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Demain은 지역 단체 및 기업, 공공 기관 등에서 파트너 형태

1) BPS(Banque de Programmes et de Services)란 다양한 직업교육분야와 관련된 영상물을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위성 수신을 통해 디지털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로 상당 부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구인·구직 및 소규모 상점 매매 등의 프로그램에 해당 기업의 협찬을 받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명목으로 지역 단체의 예산을 끌어오기도 한다.

라. 독일

독일은 지상파 TV방송 ARD 방송사 산하에 있는 BR-alpha 채널이 교육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직업 교육 및 직접적인 교육·정보 프로그램들이 중점적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종합구성물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것이다(EBS, 2002).

또한 독일에서는 각 지역 방송국 중심으로 방송 아카이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TV 및 라디오에서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나아가 각 주나 시 단위에서도 방송 프로그램, 16mm·필름 자료 등을 보유한 영상 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접근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국외 방송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표 3> 참조).

〈표 3〉 국외 직업훈련방송

국 가	방송사	종 류	내 용
미 국	PBS	공영방송	성인학습서비스(ALS: Adult Learning Service) 제공 (1) RTE : Ready to Earn (2) GTD : Going the Distance (3) The Business Channel
영 국	BBC	공영방송	(1) BBC 2 Learning Zone : 심야새벽시간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2) BBC Knowledge : 교육전문 디지털 채널, 쌍방향 서비스 (3) BBC Online : Online을 통한 주문형 서비스 제공
프랑스	France 5	공영방송	· 미취업자, 실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업 관련 최신 정보 및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웹사이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서비스 제공
	Demain	유선방송 (유료)	· 서비스형 프로그램 : 실용적인 정보 제공 · 테마형 프로그램: 장애인 직업정보, 문화계 취업 관련 정보 등 테마형 정보 제공
독일	BR-Alpha	공영방송	드라마, 다큐멘터리, 종합구성물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프로그램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직업훈련방송에 운영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원칙적인 이념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파 또는 교육방송을 주축으로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상호협조 하에 실질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제공되고 있다. 미국 PBS의 경우 국가기술기준위원회(NSSB: National Skill Standards Board)에서 도출된 근로자가 갖춰야 할 기술, 지식, 능력을 포함하는 직업기준 즉 일명 '국가기술기준(National Skill Standards)'을 토대로 학습준비(Ready to Ear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재직근로자가 현재 갖추고 있는 지식 및 기술과 지구촌 경쟁 시대에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의 차이를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국외 방송사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세분화, 전문화, 조직화, 다양화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PBS의 경우, 성인학습서비스(ALS)를 주축으로 그 하부조직에 학습준비(Ready to Earn), 원격교육(Going the Distance) 및 비즈니스채널(PBS Business Channel) 등으로 세분화시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준비(RTE) 서비스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원격교육(GTD) 서비스는 성인들의 학위취득을 목표로, PBS 비즈니스채널 서비스는 대학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 연마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해 자칫 이론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업훈련방송 프로그램을 산업체 및 학교와 연계하여 실제상황에 적용시킴으로써 좀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국외 방송사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방송 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좀더 많은 학습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BBC는 디지털과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쌍방향 서비스를 확충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France5 방송사도 방송을 통해서만 넓은 수의 시청자를 수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CD-ROM 제작, 비디오 테이프 및 교재출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 BR-alpha 경우에는 방송 아카이브를 통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 자료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각 주나 시 단위에서도 방송 프로그램과 16mm 필름 자료 등을 보유한 영상 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도 및 용이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넷째, 국외 방송사는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프랑스 Demain 경우 지역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파트너십 형태로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구인·구직 및 소규모 상점 매매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기업의 협찬을 받거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단체의 예산을 끌어오고 있다.

Ⅲ. 재직자와 실업자의 인식 및 요구

1. 설문조사 분석 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틀은 ①직업훈련방송 인지도, ②직업훈련방송 시청의향, ③직업훈련방송 요구, ④직업훈련방송 시청환경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재직자 및 실업자의 설문조사 분석 틀

조사대상	분석영역	분석항목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방송 인지도	직업훈련방송 인지도
		직업훈련방송 인지 경로
	직업훈련방송 시청의향	직업훈련방송 시청 의향
		직업훈련방송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직업훈련방송 요구	직업훈련방송 선호 분야
		직업훈련방송 편성 분량·횟수·시간대
		직업훈련방송 제작 항목의 중요도
		매체 활용에 대한 요구
	직업훈련방송 시청 환경	매체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TV 수신가능 여부

2. 설문조사 대상

인식 및 요구 분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20개의 훈련기관 및 기업을 임의로 선정하여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응답자는 790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구역, 최종학력, 직업유무, 종사직종, 소속업체 규모, 총 직업경력 등의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특 성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성 별	남 자	600	75.9
	여 자	190	24.1
연 령	20세 이상~30세 미만	288	36.5
	30세 이상~40세 미만	309	39.1
	40세 이상~50세 미만	161	20.4
	50세 이상~65세 이하	25	3.2
	missing value	7	0.8
근무구역	대 도 시	464	58.7
	중·소도시	253	32.1
	군·읍·면	35	4.4
	missing value	38	4.8
최 종 학 령	중졸이하	15	1.9
	고 졸	240	30.4
	전문대졸	179	22.6
	대학교졸	286	36.2
	대학원졸	67	8.5
	missing value	3	0.4
직업유무	있 음	597	75.6
	없 음	186	23.5
	missing value	7	0.9
종사직종	사무관리직	242	30.6
	영 업 직	23	3.0
	생산기능직	111	14.0
	전문기술직	166	21.0
	기 타	25	3.2
	missing value	223	28.2
소속업체 규모	대 기 업	218	27.6
	중 소 기 업	161	20.4
	missing value	411	52.0
총 직업경력	5년 미만	295	37.3
	6년 ~ 10년	161	20.4
	11년 ~ 20년	198	25.1
	21년 이상	44	5.6
	missing value	92	11.6
전 체		1,013	100.0

3. 설문조사 결과

가. 직업훈련방송 인지도

현재 노동부의 지원으로 EBS 위성 방송을 통해 직업훈련방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의 17.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알고 있다	139	17.6
모르고 있다	651	82.4
계	790	100.0

직업훈련방송에 대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7> 참조), 전체 응답자의 68.8%가 방송 홍보를 통해서 직업훈련방송의 실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20.3%, 사람소개가 6.5%로 나타났으며, 신문광고는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방송홍보	95	68.8
신문광고	6	4.4
인 터 넷	28	20.3
사람소개	9	6.5
계	138	100.0

나. 직업훈련방송 시청 의향

(1)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시청 의향

향후 직업훈련방송을 시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 (70.3%)들이 시청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는 전반적으로 직업훈련방송에 대해 높은 참여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시청 의향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시 청	537	70.3
비 시 청	227	29.7
계	764	100.0

(2) 직업훈련방송 시청 시 장점

직업훈련방송을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무엇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표 9> 참조). 특히 이 문항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장점을 표시할 경우,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제 1 순위로 표시한 장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6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므로 17.7%,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므로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나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실업자의 경우에 하루종일 진행된 업무 또는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안한 환경에서 방송을 통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직업훈련방송의 장점 제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339	63.7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므로	69	13.0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므로	94	17.7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23	4.3
기 타	7	1.3
계	532	100.0

(3) 직업훈련방송 시청 시 단점

직업훈련방송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응답자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다.

장점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상의 단점을 표시할 경우,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단점 제 1순위는 방송 시간에 맞추어 시청하기 어렵다는 점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2.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재직자 및 실업자들이 바쁜 일상 스케줄에 매여 시간 융통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 편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일방적인 강의를 듣기만 하고 직업 참여할 수 없기 때문과, 집중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 각각 10.9%의 동일한 응답률로 나타났다. 훈련 이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4.5%, 위성 또는 케이블 방송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3.2%, 내용 구성의 난이도가 내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 2.7%로 다소 낮은 단점으로 인식되었다.

<표 10> 직업훈련방송의 단점 제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방송 시간에 맞추어 시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137	62.3
일방적인 강의를 듣기만 하고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24	10.9
위성 또는 케이블 방송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7	3.2
집중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어려우므로	24	10.9
훈련 이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0	4.5
내용 구성의 난이도가 내 수준에 맞지 않아서	6	2.7
기 타	12	5.5
계	220	100.0

다.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요구

(1) 선호하는 직업훈련방송 분야

향후 직업훈련방송을 시청할 경우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표 11>과 같다.

<표 11> 직업훈련방송의 선호 분야(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교양 과정	171	8.6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과정	389	19.5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	351	17.6
자격취득 과정	410	20.5
특수계층(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37	1.8
창업 과정	260	13.0
다양한 직무향상 과정	207	10.4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교육 과정	98	4.9
직업훈련정책 및 현장 동향	64	3.2
기 타	9	0.5
계	1996	100.0

응답자가 가장 높게 선호하는 분야는 자격취득 과정과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과정이 각각 20.5%, 19.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외국어 과정이 17.6%, 창업 과정이 13.0%, 다양한 직무향상과정이 10.4%, 교양과정이 8.6%,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교육과정이 4.9%, 직업훈련정책 및 현장동향이 3.2%로 나타났으며, 특수계층(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이 1.8%로 가장 낮은 선호도로 응답되었다.

(2) 적절한 편성 시간, 편성 횟수 및 편성 시간대

현재 직업훈련방송은 프로그램별로 1회 30분 방영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1회 편성 시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55.0%가 30분 정도라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다음으로는 21.3%가 40분 정도, 13.6%가 50분 이상, 10.1%가 20분 이하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재직자 및 실업자들 경우 바쁜 일상생활에 맞추어 30분 정도의 프로그램이 장시간 프로그램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직업훈련방송의 적절한 1회 편성 시간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20분 이하	76	10.1
30분 정도	415	55.0
40분 정도	161	21.3
50분 이상	103	13.6
계	755	100.0

다음은 직업훈련방송의 프로그램별 적절한 주당 편성 횟수이다. 현재 직업훈련방송은 프로그램별 주당 2~3회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주당 적절한 편성 횟수를 질문한 결과, <표 13>과 같다.

<표 13> 직업훈련방송의 1주당 적절한 편성 횟수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주당 1~2회	388	53.4
주당 3~4회	273	37.6
매 일	65	9.0
계	726	100.0

응답자의 반 이상인 53.4%가 주당 1~2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7.6%가 주당 3~4회를, 매일 방송에 대해서는 9.0%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바쁘고 시간적 융통성이 비교적 적은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현 편성 시스템을 유지하여 30분 정도 프로그램을 주당 1~2회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직업훈련방송의 적절한 편성 시간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직업훈련방송은 주로 새벽, 야간, 주말 오후 등의 시간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로는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야간을 선호하였으며(75.1%), 그 다음으로 새벽(13.5%), 오후(6.3%), 오전(5.0%)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는 타 문항과 마찬가지로 재직자 및 실업자의 특성이 잘 반영된 응답으로서, 오전·오후에 외부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야간 시간대가 직업훈련

방송을 시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직업훈련방송의 적절한 편성 시간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새 벽 (07시 이전)	97	13.5
오 전 (07시 - 12시)	36	5.0
오 후 (12시 - 19시)	45	6.3
야 간 (19시 - 01시)	538	75.1
계	716	100.0

(3) 직업훈련방송 제작 항목 중요도

직업훈련방송 제작과 관련된 항목을 8개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중요에서 전혀 중요치 않음의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제작 관련 각각의 항목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직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 구성(56.0%)’과 ‘우수 강사진의 선정(56.7%)’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소재 구성(47.1%)’ 및 ‘강의 진행 방법의 우수성(46.8%)’의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 15> 직업훈련방송 제작 항목 중요도

(단위: 명, %)

구 분	중 요 도					계
	매우 중요	다소 중요	보통	다소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훈련 대상 집단의 명확성	234(31.9)	251(34.2)	216(29.5)	25(3.4)	7(1.0)	733(100.0)
직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 선정	278(38.1)	275(37.7)	164(22.5)	8(1.1)	4(0.5)	729(100.0)
직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 구성	408(56.0)	222(30.5)	90(12.3)	6(0.8)	3(0.4)	729(100.0)
흥미 있는 화면 구성	201(27.6)	251(34.5)	230(31.6)	33(4.5)	13(1.8)	728(100.0)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 및 소재 구성	345(47.1)	272(37.2)	99(13.5)	11(1.5)	5(0.7)	732(100.0)
우수 강사진의 선정	417(56.7)	211(28.7)	94(12.8)	8(1.1)	6(0.8)	736(100.0)
강의 진행 방법의 우수성	342(46.8)	263(36.0)	106(14.5)	13(1.8)	7(1.0)	731(100.0)
편성 횟수와 시간대	264(35.7)	284(38.4)	161(21.8)	20(2.7)	10(1.4)	739(100.0)

(4) 효과적인 직업훈련방송을 위한 매체의 활용 요구

응답자들에게 효과적인 직업훈련방송을 위해 TV, 라디오, 인터넷의 세 가지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다.

<표 16> 효과적인 직업훈련방송을 위한 매체 활용 요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TV에 한정하여	61	8.1
라디오에 한정하여	4	0.5
인터넷에 한정하여	43	5.7
TV와 라디오를 병행하여	38	5.0
TV와 인터넷을 병행하여	377	49.8
라디오와 인터넷을 병행하여	8	1.1
TV, 라디오, 인터넷을 모두 병행하여	226	29.9
계	757	100.0

응답자들의 절반 수준인 49.8%가 TV와 인터넷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TV, 라디오, 인터넷을 모두 병행하는 것(29.9%)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직자 및 실업자는 인터넷에의 다양한 활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각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TV 뿐만 아니라, 휴대가 간편한 라디오 및 학습자의 개별성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세 가지 매체를 모두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직업훈련방송의 효과적인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

현재 직업훈련방송의 제한점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보완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17>과 같다.

〈표 17〉 직업훈련방송의 효과적인 보완 방법에 대한 선호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교 재	164	21.8
녹화 테이프	79	10.5
인 터 넷	509	67.7
계	752	100.0

응답자들은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이 넘는 67.7%가 인터넷을 선호하였으며, 21.8%가 교재를, 10.5%가 녹화 테이프를 선호하였다. 이는 앞으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직업훈련방송 시청 환경

현재 직업훈련방송은 EBS 플러스2 위성TV로만 방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훈련방송 시청환경 즉 물리적 기반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8>과 같다. 응답자 각 가정의 위성 방송 수신이 가능한 경우가 64.1%로 나타났다.

〈표 18〉 각 가정의 위성 방송 수신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가능하다	501	64.1
불가능하다	280	35.9
계	781	100.0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국내외 직업훈련방송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

았으며 재직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직업훈련방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방송의 향후 발전을 위한 운영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방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운영전략이 요구된다.

직업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무료 수강에 대한 이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능한 강사의 강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나 무엇보다도 직장이나 훈련 시설을 벗어나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재직자 및 실업자에게 더 없는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용자가 훈련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위성 방송 시청을 위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직업방송의 내용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시간대 편성과 위성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도 시청 가능한 방송 매체 및 채널의 확보, 인터넷 또는 실험·실습 등을 위한 최소한의 출석 수업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직업훈련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용자의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수용자 요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와 모니터링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집단별 특성을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의견 수렴을 위한 연간 혹은 정기적으로 시청자 요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시청자 그룹을 모니터링 요원화함으로써 직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질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선정된 모니터링 풀(pool)을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용자의 방송 수혜 기회 확대 및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방송 제공 매체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실상 재직자 및 실업자들이 현재 EBS 위성 방송에 제한된 직업훈련방송에 대하여 라디오 및 인터넷을 병행 운영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V 방송 외 다양한 매체의 활용은 직업훈련방송 수혜 기회 및 질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인터넷과의 병행은 가장 큰 단점이었던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습자가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직업훈련체제로 발전될 수 있으며, 직업방송의 훈련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방송 수혜를 확대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성 방송 외에도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으로 직업방송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방송 매체 외에도 연령, 학력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방송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방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시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녹화 테이프, CD-ROM 개발·보급 등의 보완적인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방송의 체계적인 기획·운영과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직업방송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EBS 간의 연계로 기획·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세계의 변화와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변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추세, 교수-학습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반영할 때 노동시장 연구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자 만족도 조사가 아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하윤금, 조영직(2000). 교육방송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00-07).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 한국교육방송(2002). 해외방송조사보고서-중점영역(직업, 통일, 환경). 내부용 미출판 자료.
- _____ (2002). EBS에서의 직업·전문교육방안. 내부용 미출판 자료.
- 라 썩키엠프 방송 사이트. <http://www.lacinqieme.fr>(2002.12.20).
- 매일경제TV 사이트. <http://mbn.mk.co.kr>(2002.12.23).
- ARD 방송 사이트. <http://www.ard.de>(2002.12.23).
- BBC 방송 사이트. <http://www.bbc.co.uk>(2002.11.29).
- e채널 사이트. <http://digilife.tv>(2002.12.20).
- JEI 스스로방송 사이트. <http://www.jntv.co.kr>(2002.11.28).
- OBC 열린 방송 사이트. <http://www.obci.co.kr>(2002.11.20).
- PBS 방송 사이트. <http://www.pbs.com>(2002.12.15).
- SDN TV 사이트. www.sdn.com(2002.12.15).

ABSTRACT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and Analysis of the Awareness and Reques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Lee, Sook-you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Jang, Myung-hee
University of Oklahoma Han, Jeong-l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eo, Chang-kyo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Jeon, Jo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trategic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To do so, it focuses on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and examining the awareness and request of the employed and unemployed on the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In Korea, the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has been provided on the EBS Satellite TV plus2 to improve vocational capabilities of the employed and unemployed under the support of Labor Ministry in corporation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n case of the foreign broadcasting, PBS(US), BBC(UK), France5 · Demain(France), and BR-alpha(Germany) have been providing various programs for their people's vocational training.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790 of the employed and unemployed through post-mail.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awareness of the employed and unemployed on the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is low, most of them intends to watch the vocational training broadcasting in the future. Second, the most preferred programs were certificate acquirement courses. Computer utilization and vocational capability enhancement courses were also strongly preferred. Third, most importantly,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training resources by sharing human, material and information resources with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a result, programming is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each target audience in balance.